

##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5강 스캔들이 된 예수의 말씀

###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삼위일체 사상이 있고, 그 사상은 신자의 윤리에 대한 함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2.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 II. 예수님의 말씀이 스캔들이 되다

1. 이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결론부인 뒤쪽부터 읽고 다시 앞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 대.” 이 말씀은 예수님이 6장 22절부터 51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가리킵니다. 핵심 내용은 예수가 생명의 떡(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말씀이 심오해서 그 뜻을 깨닫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로도 “어렵다”는 말은 거칠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는 말도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2.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61a절). 구약의 전통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출 16:2, 8-9; 민 11:4ff.).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61b절) 여기서 “걸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의 스캔들(scanda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곧 추문,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스캔들입니다. 그것은 곧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말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

3. 실제로 예수의 말씀이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이 제자의 본분인데, 이제 더 이상 그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이기를 이제 그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의 어떤 말씀이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되었습니까?

### III.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왜 스캔들이 되었을까?

1.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걸림이 되는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할 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말을 할 때 그 말이 걸림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께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는 군사 지도자 메시아였습니다. 6장 14-1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3.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는 신명기 18:15-19에 나와 있는 말세에 나타날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를 그 예언자요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듯이, 예수는 정치적/군사적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cf. 사 9:6-7).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런 종류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4.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는 이런 메시아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북한 핵을 없애시고 남북통일을 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우리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 정치 민주화를 위한 예수님, 여성해방을 위한 예수님, 한국 사회를 화합시키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이런 일도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제시된 예수님은 힘을 아무렇게나 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단순한 정치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 지도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5. 둘째,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는 단순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로 앞서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또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7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하기 때 문입니다.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6. 지금도 우리는 빵을 위해 예수를 좇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믿지만, 단순히 빵만을 주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예수를 따르려 해서 안 됩니다.

#### IV. “나는 생명의 빵이다”

1. 셋째, 예수님의 말씀이 보다 심각하게 걸림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41-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의 외관만 보았지, 예수가 신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성육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저 하늘에 계시지, 아니면 지성소에서 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 만나시지, 필부필부와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분이랴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사실 초대 교회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성육신의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모습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현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저급한 육체가 되실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고 내가 죽을 때 맞아하기만 하셔야지, 내가 사는 세상, 그것도 내 옆에 와 계시면 내 삶이 불편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4. 넷째, 그런데, 예수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사실 그것은 자신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51b절). 나아가 예수는 피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6.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 신자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신자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피를 먹는다는 말을 쓴 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빵의 주제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58절)

7.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메타포를 써가면서까지 예수님은 왜 살과 피와 빵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 와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안식일은 병자들이 참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을 준수하는 것, 피를 먹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 만나를 내려준 것을 그냥 역사적으

로,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 거기에 참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 신은 살아 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을 위해 존재하고, 의식에 갇힌 하나님이었습니니다.

8. 여기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먹는 자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신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요 15:7). 이것은 마치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거함과 같은 원리입니다(요 17:20-23).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특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위격의 존재에 상호 침투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이것과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의 일부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예수로 규정짓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인생도 없고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9. 서구 문화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안에 누가 쳐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기는 하지만, 각각입니다. 반면, 유교 문화는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가부장이 곧 자신의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독립성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문화 모두 오늘 진리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여 나의 인격의 일부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목사나, 아버지나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가부장의 역할은 없습니다.

10. 우리의 언척은 얼마나 예수님과 합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성육신한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됩니까? 일용할 양식이요, 살과 피가 됩니까? 아니면 예배 의식 속에 갇혀 있는 분입니까? 그런 예수는 우리가 만든 예수가 아닐까요? 그분을 아무리 고이 모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먹고 나의 살과 피가 되지 않는 한 그분은 만들어진 예수님입니다. 성육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1.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데,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대속하는 예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19:34).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속자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죽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12.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살과 피라는 용어가 예수의 성만찬 제정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임을 들어 이 본문을 성만찬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요한은 성만찬의 제도보다도 그 의미에 더 초점을 둔 것은 확실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세례도 성만찬 제정 본문도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질이 제도로 환원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V. 적용과 실천

1.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 먹고 마실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빵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 중심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형성해야 합니다.

2.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매일 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홀로 따로 존재하고 예수님은 어떤 곳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본질의 일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3.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캔들(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VI. 나가는 말

1.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왜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스캔들(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었는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2.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7-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